

# 나·너 일체 이뤄야 진짜 춤



한국무용협회이사장 · 한양대 교수

## 김복희

올 1월, 한국무용계에는 대 이변이 일어났다. 14년간 장기집권한 조흥동씨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새 무용협회 이사장에 김복희 한양대 무용과 교수(57)가 선출됐다. 그것도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무용계는 새 사명관을 맞았다.

현대무용가 출신으로는 40년 무용협회 사상 첫 번째인 김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그동안 한국무용이 독주해온 무용협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한국무용협회 주최로 열렸던 서울무용제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심사위원 추천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광화문 댄스페스티벌에 2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점은 김 이사장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작품 기획과 협회의 행정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신이 만든 작품에 직접 출연할 정도로 무용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영원한 현역' 김 교수의 첫 무대는 197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교수는 이화여대 1년 후배인 김화숙씨(현 원광대 교수)와 '김복희·김화숙 무용단'을 창단했다. 그리고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첫 작품으로 '법열의 시'를 무대에 올렸다.

"자아 찾기 과정을 그린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었죠. 묵락과 범종, 목어와 운판을 무대위로 동원했어요. 당시만 해도 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처음 시도된 현대무용 작품이라 "저게 무슨 현대무용이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주위의 냉혹한 평가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김 교수는 '서양에 현대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현대가 있다! 비록 서양적 형식을 빌려 왔더라도 우리나라 춤꾼은 한국적 정서를 담아야 한다. 현대 무용에서도 우리의 몸놀림을 찾아야 한다'며 계속 자신의 작품 세계에 불교적 정서를 끊임없이 주입했다. 이것은 불교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불교적 소재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대구 관음사를 창건할 정도로 불심이 돈독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란 그에게 불교는 단순히 예술적 소재를 넘어선 하나의 삶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방학때면 자신의 고향인 대구 동화사 영불암에서 대부분을 보냈을 정도로 김 교수는 불교를 일찍부터 접했다.

그래서일까. 35년동안 무대에 올라온 60여편의 작품들 대부분이 불교와 무관하지 않다. '춘향이야기'에서는 절 마당에 고요히 서 있는 담이 이야기하는 것



35년간 불교문학 등을 춤으로 승화  
작품 기획·협회 행정·무용가 '1인 3역'  
현대춤협회 발족, 남성 무용수 육성 등 실현  
서양 무용의 한계 삶의 일부인 불교서 찾아



을 몸짓 언어로 옮겼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만든 '호곡'에서는 무대에 끊임없이 향을 피워댔다.

<화엄경>의 이야기를 춤으로 옮겨본 '흙으로 빛은 사리의 나들이'는 한 시간이 넘는 대작으로 정중동의 움직임을 현대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 교수는 춤에 여러번 무용수들의 육성도 섞었

다. 김 교수는 몸의 움직임만이 춤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소리까지도 넓은 의미의 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론 그의 춤에는 인간의 울음과 절규도 등장한다. 원효대사 이야기를 그린 '요석, 신라의 외출' 또한 수작으로 꼽히는 김 교수의 대표작이다. 원효 대사와 주인공 달래가 꿈속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고 이틀 날 아침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에서는 희미한 영고성쇠의 잔영속에 구슬 살풀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 교수가 맨 앞에서 정중동의 춤사위를 훑는다. 밖으로 퍼져나가는 동작대신 움직임을 안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이 대변해 주듯 김 교수의 춤은 인간의 연(緣)을 뿌리로 한 불교적 무용소설이다. 35년의 춤작업은 불교문학 더 나아가 한국전통 문화를 춤무대로 고스란히 불러낸 만행이었다.

"진정한 춤은 제가 밤을 세워 해인사 백련암에서 3천배 철야정진을 했던 것처럼 파나는 인고와 정진의 정신이 있어야 잉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과 느림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 동작이 내 자신과 일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야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편안한 춤사위가 나오지요. 그래서 기교를 부리기 보다는 모든 잡념을 떨쳐 버리고 무아의 상태에서 춤 때 대중들도 비로소 함께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 김 교수는 춤 연습이외에도 서울 법륜사를 다니며 절수행과 참선도 열심히 한다.

35년동안 김 교수가 우리 무용계에서 이룬 기념비적인 작업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국적인 현대춤 만들기, 남성 무용수 육성, 한국현대춤협회 발족(86년), 안무자의 작가 정신을 강조한 '춤작가 12인전' 창설(87년), 무용인 최초로 체육대학장 부인 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그의 도전은 결국 하나씩 실현됐다.

"모든 춤은 내 자신을 찾아가면서 타인과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선입니다. 따라서 관객 즉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조화되지 않으면 춤이 될 수 없으며,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일찍 서양 무용의 한계를 동양적 정서, 제 삶의 일부인 불교에서 찾으려 했던 것 뿐입니다."

앞으로 은퇴 전에 대어섯 작품 정도의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김 교수는 "어떤 사람이 그림이다. 춤은 일회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허전하지 않느냐고, 문학이나 회화처럼 축적되는게 없잖 않느냐고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는게 어디 있겠노? 여차피 사라질 거라면 금방 꼭 사라지는게 더 안 낫나. 그랬더니 곧장 긍정 하던군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한 자세에서 한국무용의 희망이 물씬 느껴졌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몸동작이 자신과 일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야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편안한 춤사위가 나올 수 있다는 김복희 교수.

사찰건축 전문시공업체 ■ 서도건설(주)

## 사찰, 단청, 문화재, 건축, 토목...

불교문화재 보존과 완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면 과거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렇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옛 도시..

서원경에서 문화재 공사의 새로운 기운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瑞都建設株式會社 代表 曹奉鉉

忠北 清州市 上黨區 龍岩洞 1558 1층 • 전화: 043)294-6700 • 전송: 043)294-5434 • H.P: 011-463-1718